

## 배경훈 부총리, K-문샷 「SMR 선박」 미션 추진을 위한 기업 간담회 주재

- SMR 선박 개발 가속화 방안 논의, ‘민관합동 SMR 선박 추진단’ 구성 합의
- 혁신형 SMR(i-SMR), 소듐냉각고속로(SFR) 연구 현장 방문 및 연구자 격려

【관련 국정과제】 28.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(NEXT) 전략기술 육성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4월 29일(수) 한국원자력연구원 (원장 주한규, 대전 유성구)에서 **배경훈 부총리 주재 SMR 선박 기업 간담회**를 개최하고, **혁신형 SMR(i-SMR)** 및 **소듐냉각고속로(SFR) 종합효과실험 시설**을 방문하여, 연구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.

정부는 지난 3월 11일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**국가적 임무를 AI로 해결하는 ‘K-문샷 프로젝트’** 12대 미션 중 하나로 소형화, 안전성, 장기 연속운전 등 해양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**용융염원자로(MSR) 기반 SMR 선박 개발**을 선정하였다.

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9일(목) 수석보좌관회의에서 **향후 5년을 SMR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**으로 보고, 지난 2월 제정된 「**SMR 특별법**」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**총결집**할 것을 당부하였다.

이번 간담회는 그 일환으로 MSR 개발을 주관하는 **한국원자력연구원**과 **삼성중공업, HD한국조선해양, 한화오션, 세추리, 현대건설** 등 SMR 선박 관계 기업 및 학계에서 참석하였으며, ‘K-문샷 프로젝트’ 상 ‘**35년까지 SMR 선박 건조에 착수**하기 위한 **민-관 협력 방안**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간담회 참석자들은 ‘**2035년 SMR 선박 건조 착수**’란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해 **AI를 활용한 가상 원자로 플랫폼 구축**을 통해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는 등 **개발 기간을 단축**할 필요가 있으며, **SMR 선박의 특성**을 고려한 **인허가 제도 정비**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.

또한, 참석자들은 SMR 선박에 특화된 **전문인력 양성**과 국제기준 협의를 위한 **국제협력** 등 **제반 사항의 필요성**을 강조하며, 과기정통부가 원천기술 개발부터 SMR 선박 실증, 상용화까지 **전 단계에서 역할**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 이에 과기정통부와 참석자들은 ‘**민관합동 SMR 선박 추진단**’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고, 조속한 구성을 통해 협력 채널로서 적극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.

**배경훈 부총리**는 “한국의 원자력과 조선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므로, 향후 전개될 친환경 선박 시장 또한 **K-SMR 선박**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**민-관의 긴밀한 협력**이 필요하다”라고 강조하면서, “「**SMR 특별법**」 제정(’26.9.11 시행)으로 SMR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할 든든한 **제도적 기반**이 마련된 만큼, **K-문샷 미션**으로 추진되는 **SMR 선박**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**아낌없이 지원**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이날 부총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**혁신형 SMR(i-SMR) 종합효과실험 시설(i-STEP) 구축 현장**을 방문하고(’26.12월 준공 예정), 표준설계인가 획득(~’28) 등 i-SMR 추진 계획을 공유받고, 연구자를 격려했다. 이어서 **소듐냉각고속로(SFR) 종합효과실험 현장(STELLA-II)**을 방문하여 개발 상황을 확인하고, 연구자를 격려했다.

담당 부서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	책임자
		담당자